



INCHEON UNITED
SPONSOR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THE UNITED

OFFICIAL MAGAZINE

2025.03.15 / 제2호

MATCH PREVIEW

서울 이랜드 상대로 승리 도전한다
부산 펍고 승격 경쟁 우위 노린다

BLUEMAN INTERVIEW

‘막내에서 수비의 중심으로’ 김건희
“마음껏 기뻐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

ROOKIE INTERVIEW

‘성공적인 프로 데뷔’ 최승구
“리그 우승으로 K리그에 돌아가겠다”

UTD REPORT

‘더욱 젊고 활기찬 팀’이 된 인천,
팀의 새로운 성공 공식을 찾다



제2호 THE UNITED / 발행일 2025년 03월 15일 / 등록번호 영등포.라00591

배포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자단 / 디자인 인쇄소 발행소 더스포츠키퍼니케이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유희팩카드빌딩 18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할 수 없습니다.



INCHEON UNITED 2025 SQUAD

 윤정환 감독 HEAD COACH	 이호 수석코치 COACH	 아벨 코치 COACH	 정혁 코치 COACH	 권찬수 GK코치 GK COACH	 김용신 전력분석코치 PERFORMANCE COACH	 정문호 피지컬코치 PHYSICAL COACH
 김정훈 수석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진영 통역 INTERPRETER	 오승기 통역 INTERPRETER	 조용희 장비담당관 KIT MANAGER	
 5 이명주 MIDFIELDER	 6 문지환 MIDFIELDER	 7 김도혁 MIDFIELDER	 8 신진호 MIDFIELDER	 9 무고사 FORWARD	 10 이동률 FORWARD	
 15 임형진 DEFENDER	 16 이가람 MIDFIELDER	 17 김성민 FORWARD	 18 백민규 FORWARD	 19 김민석 FORWARD	 20 멜브리지 DEFENDER	
 24 강도욱 MIDFIELDER	 25 이범수 GOAL KEEPER	 27 김보섭 FORWARD	 28 민경현 DEFENDER	 29 강민성 FORWARD	 30 서동한 FORWARD	
 37 홍시후 DEFENDER	 39 김명순 DEFENDER	 47 김동민 DEFENDER	 50 박진홍 MIDFIELDER	 66 김세훈 MIDFIELDER	 77 박승호 FORWARD	
					 99 박호민 FORWARD	

2025 SCHEDULE

1R	02월 22일 (토) 14:00	2	인천: 경남	0	인천축구전용
2R	03월 01일 (토) 14:00	2	인천: 수원	0	인천축구전용
3R	03월 09일 (일) 16:30	2	성남: 인천	1	탄천종합
4R	03월 15일 (토) 14:00		인천: 서울E		인천축구전용
코파	03월 23일 (일) 14:00		춘천시민: 인천		춘천송암
5R	03월 29일 (토) 16:30		인천: 부산		인천축구전용
6R	04월 05일 (토) 14:00		화성: 인천		화성종합
7R	04월 13일 (일) 14:00		인천: 충북청주		인천축구전용
8R	04월 19일 (토) 14:00		인천: 천안		인천축구전용
9R	04월 26일 (토) 16:30		부천: 인천		부천종합
10R	05월 04일 (일) 16:30		인천: 김포		인천축구전용
11R	05월 10일 (토) 19:00		충남아산: 인천		아산이순신
12R	05월 18일 (일) 16:30		안산: 인천		안산와~
13R	05월 25일 (일) 16:30		인천: 전남		인천축구전용
14R	06월 01일 (일) 19:00		천안: 인천		천안종합
15R	06월 08일 (일) 19:00		인천: 부천		인천축구전용
16R	06월 15일 (일) 19:00		수원: 인천		수원월드컵
17R	06월 21일 (토) 19:00		인천: 화성		인천축구전용
18R	06월 29일 (일) 19:00		김포: 인천		김포솔더
19R	07월 05일 (토) 19:00		전남: 인천		광양축구전용
20R	07월 13일 (일) 19:00		인천: 충남아산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20일 (일) 19:00		경남: 인천		창원축구센터
22R	07월 27일 (일) 19:00		인천: 안산		인천축구전용
23R	08월 02일 (토) 19:00		서울E: 인천		목동종합
24R	08월 09일 (토) 19:00		부산: 인천		구덕운동장
25R	08월 16일 (토) 19:00		인천: 성남		인천축구전용
26R	08월 24일 (일) 19:00		충북청주: 인천		청주종합
27R	08월 30일 (토) 19:00		인천: 충남아산		인천축구전용
28R	09월 07일 (일) 19:00		부천: 인천		부천종합
29R	09월 13일 (토) 19:00		천안: 인천		천안종합
30R	09월 20일 (토) 19:00		인천: 김포		인천축구전용
31R	09월 28일 (일) 19:00		서울E: 인천		목동종합
32R	10월 04일 (토) 16:30		화성: 인천		화성종합
33R	10월 08일 (수) 14:00		인천: 수원		인천축구전용
34R	10월 12일 (일) 16:30		성남: 인천		탄천종합
35R	10월 19일 (일) 14:00		안산: 인천		안산와~
36R	10월 26일 (일) 14:00		인천: 경남		인천축구전용
37R	11월 02일 (일) 14:00		인천: 부산		인천축구전용
38R	11월 08일 (토) 14:00		전남: 인천		광양축구전용
39R	11월 23일 (일) 14:00		인천: 충북청주		인천축구전용

-경기 경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리아컵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s SEOUL E PREVIEW

‘역대 첫 번째 맞대결’ 인천, 서울 이랜드 상대로 승리 도전한다

글 = 김화원UTD기자(ghkdns1129@naver.com)

인천 유나이티드가 서울 이랜드와의 첫 맞대결을 승리로 장식하며 승격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가고자 한다.

개막 후 2승 1패의 성적으로 출발한 인천은 첫 경기에서 무고사와 김성민의 득점으로 2-0 승리를 거두며 상쾌한 출발을 알렸다. 이어진 두 번째 경기에서도 무고사와 김성민이 연속해서 골을 터뜨리며 2-0 승리를 추가, 두 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기록하며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입증했다. 하지만 세 번째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2-1로 패배하며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제르소의 선제골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었지만, 후반에 상대의 동점골과 역전 골을 허용하며 연승 행진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인천은 아쉬운 결과를 맞았지만, 이번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승리의 기운을 되찾고자 한다.

인천의 공격진에서는 무고사가 시즌 초반부터 득점력을 발휘하며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개막 후 첫 두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고,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성민 역시 날카로운 슈팅과 뛰어난 공간 활용 능력으로 공격의 핵심에서 팀을 이끌고 있다. 수비진에서는 박경섭과 최승구가 안정된 라인을 구축하며 상대의 빠른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김보섭은 측면에서 수비와 공격을 자유롭게 오가며 전술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서울 이랜드는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17승 7무 12패로 승점 58점을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인 3위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나,

전북 현대를 넘지 못하고 승격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리그 최다 득점팀(62골)을 기록하며 공격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김도균 감독의 지도하에 이번 시즌 승격을 목표로 대대적인 전력 보강을 단행했다.

특히 외국인 선수 영입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K리그1 무대 경험이 있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호주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아이데일을 영입했으며,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페드랑요와 공격수 에울레르까지 합류시키며 더욱 강력한 스쿼드를 구축했다. 이러한 전력 보강의 효과는 조직적이고 빠른 전개를 통해 공격에 있어서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즌 초반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팀 전력이 단단해졌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첫 맞대결을 넘어서, 각 팀의 시즌 목표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를 통해 패배의 아쉬움을 씻고, 승격을 위한 발걸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며, 서울 이랜드는 승격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승리가 필요하다.

두 팀의 승리를 향한 두 팀의 치열한 첫 맞대결, 그 승부의 향방은 3월 15일 오후 2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가려진다.



vs BUSAN PREVIEW

‘쉽지 않은 2부’ 인천, 부산 꺾고 승격 경쟁 우위 노린다

글 = 손지호 UTD기자 (sonjiho50@gmail.com)

3월의 마지막 주, 인천은 홈에서 부산아이파크를 상대한다. 2020년 10월 홈에서 맞대결 이후 약 5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 당시 인천은 부산에 2-1로 승리를 거두며 K리그 1 잔류의 희망을 이어갔었다. 그때 인천을 이끌었던 조성환 감독이 이번엔 원정팀 감독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돌아온다.

인천은 올해 초 2024년 K리그 1 감독상을 받은 윤정환 감독을 사령탑으로 선임하며 승격 의지를 불태웠다. 이명주, 김도혁 등 주축 국내 선수들과 무고사, 제르소 등 핵심 외국인 선수를 팀에 잔류시키며 전력 공백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김명순, 이주용이 수비진에 합류했고 이동률과 EPL 출신 바로우까지 영입해 공격에 힘을 더했다. 신인 박경섭, 성희찬 등도 스쿼드 두께를 키웠다.

첫선을 보인 윤정환 호는 성공적이었다. 좋은 스쿼드에 윤정환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했고 초반 홈 2연전에서 모두 승리하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다. 공격의 핵심인 무고사가 2경기 2골 1도움으로 날카로운 발끝을 보여줬고 김성민도 2경기 연속 득점하며 최고의 조커로 자리매김했다. 젊은 수비수 최승구, 박경섭의 활약도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인천은 시즌 첫 원정 경기였던 3라운드 성남전에서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며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기 막바지로 갈수록 떨어지는 수비 집중력을 보이며 연달아 실점했다. 2부 리그는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들이 많은 만큼 실점하고 따라가기가 이전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수비진에서 불안한 장면을 줄여야 한다.

반면 부산은 조성환 감독이 지난 시즌 중간에 부임했지만 K리그 2 5위에 자리하며 2년 연속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조성환 감독 체제로 처음 새 시즌 준비에 나선 부산은 다이렉트 승격을 목표로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에 큰 변화를 주며 승격 도전에 나섰다.

부산은 페신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선수를 전면 교체했다. 브라질 국적의 공격수 곤잘로와 수비형 미드필더 사비에르가 합류했고 콜롬비아 국적의 윙어 빌레로가 합류했다. 모두 동아시아에서 된 경험은 없지만 각자의 장점이 확실한 선수들이다. 여기에 수원삼성에서 뛰던 손석용, 장호익과 충북청주 FC에서 된 윤민호 등 K리그 2 경험자들을 영입해 공수 양면을 보강했다.

하지만 부산은 시즌 초반 무승으로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3라운드 부천 FC 상대로 첫 승을 기록하며 분위기가 반전에 나섰다.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했지만 경기당 10개 미만의 슈팅 수를 기록했고 그마저도 결정력이 아쉬웠다. 하지만 3라운드에서 사비에르를 제외한 모든 공격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예열을 마친 만큼 인천은 이들이 이끄는 공격을 집중적으로 막아야 한다.

인천과 부산과의 통산 전적은 13승 18무 9패로 인천이 우세하다. 특히 인천은 홈에서 부산에게 단 3번밖에 패하지 않았을 만큼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양 팀 모두 감독부터 선수까지 대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통산 전적으로 경기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선수단 변화가 적은 인천이 조직력 면에서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막내에서 수비의 중심으로' 김건희

**팬들이 마음껏
기뻐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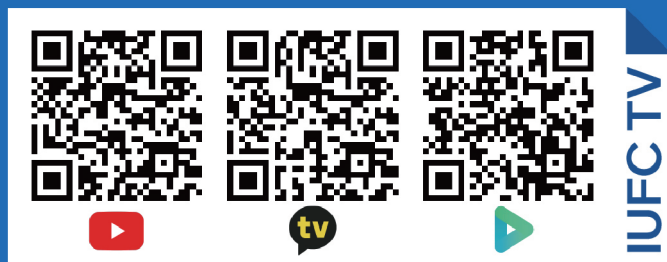
글 = 박범근 UTD기자(keu0617@naver.com)



**2025시즌 인천유나이티드
직관의 감동**을 계속 느끼고 싶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카카오TV·네이버TV
채널을 구독하세요!

인천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인천유나이티드의 미래가 이제 인천 수비의 새로운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수비진의 막내에서 수비 라인의 중심축으로 거듭한 김건희의 이야기다. 지난 시즌까지 김건희는 주로 베테랑 수비수들과 최후방을 구성했다. 그러나 올해 김건희는 박경섭, 최승구 등 자신보다 어린 수비수들과 함께 인천 수비를 이끌어가고 있다. 더 어려운 수비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김건희와 UTD 기자단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만족스러웠던 개막 홈 2연전

Q. 2025시즌이 개막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다. 지금 컨디션은 어떤가?
시즌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 상태는 아직 100%까지는 아니다. 훈련하고, 경기를 치르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다행히 크게 아픈 곳은 없다.

Q. 인터뷰 직전에 있었던 2라운드 수원삼성전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한다. 양 팀 합쳐 3명의 퇴장 선수가 나왔다. 여러모로 많은 사건이 일어난 경기였다. 선수로서 비슷한 경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프로에 와서는 처음이다. 대학교 때는 비슷한 경기가 한 번 있었다. 그 당시에 9대 11로 뒤졌었다. 내가 속한 팀이 9명이었다. 우리 팀에서 1명이 먼저 퇴장당했다. 교체 카드를 다 쓴 상태에서 1명이 다쳐서 그라운드를 나갔다. 결국에는 9대 11로 경기를 했다. 10대 9로 경기를 해본 것은 수원전이 내 커리어에서 처음이었다.

Q. 수적 열세였다가, 10대10이 되었고, 결국에는 인천이 수적 우위 이점을 얻었다.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었다. 팀, 그리고 선수들끼리 어떻게 대응했나?
처음에 (문)지환이 형이 퇴장당했을 때는 수적 열세지만, 우리가 잘 버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어떡하든 잘 버티보자는 생각으로 뛰었다. 수비 조직력 연습을 많이 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도 있었다. 그러다가 상대 팀에서 퇴장이 연달아 나왔다. 우리가 1명이 더 많은 상황이 되었다. 수적 우세에서 비기면 분위기가 떨어질 수 있었다. 10대9가 된 이후에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뛰었다.

Q. 수적 우위로 하프타임을 맞이했다. 라커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가?
우리가 1명 부족했을 때는 델브리지를 투입해서 수비 숫자를 늘렸다. 하프타임에는 우리가 수적 우위 이점을 얻었으니까 원래 하던 포지션대로 우리의 축구를 하자고 말씀하셨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김)도혁이 형을 투입해서 더 공격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변화가 잘 이루어져서 이길 수 있었다.

Q. 수원전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개장 이래 처음으로 매진되었다. 만원 관중 앞에서 된 소감이 궁금하다.
사상 첫 매진이라는 기록을 경기 끝나고 알았다. 관중이 많이 오셨다는 느낌은 있었다. 경기장에서 매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첫 매진 경기를 뛸 수 있어서 뜻깊고 영광이다. 게다가

승리도 해서 더 기쁘다. 이 분위기를 잘 이어가고 싶다.

Q. 개막 홈 2연전에서 2승을 수확했고, 동시에 실점도 하지 않았다. 수비수로서 뿌듯함이 클 것 같다.

(이)주용이 형 빼고 수비진이 어린 편이다. 훈련하면서 감독님, 코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수행하려고 했다. 그 노력이 2경기 동안 잘 나온 것 같다. 다행이다. 무실점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수비진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배울 점 많은 윤정환 감독님과 함께해서 기쁘다

Q. 작년 이야기도 해보려고 한다. 지난 시즌 37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에서 인천이 1-2로 패하며 K리그2 강등이 확정되었다. 강등이 결정된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경기가 끝났을 때, 믿기지 않았다. 현실감이 없었다. 대전전이 끝나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38라운드 대구FC전 끝나고, 시즌이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야 강등이 확실하 와 닿았던 것 같다. 무엇보다 팬들에게 죄송하다. 대전, 대구전이 끝난 뒤에는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었다.

Q. 강등 직후에 팬들이 아유 대신에 박수로 선수들을 격려했다. 선수로서 어떤 감정이었나?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응원해 주시는 팬들이 가장 속상하고, 화가 나셨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도 선수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대단하고 감사했다. 이러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다.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 광경은 멋있었다. 팬들이 좌절감을 다시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Q. 2025시즌을 앞두고 윤정환 감독이 새로 인천에 부임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윤정환 감독에 대한 인상과 실제로 겪어본 윤정환 감독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윤정환 감독님이 이끄시던 강원FC 경기를 보고, 나도 저러한 스타일의 축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다. 감독님이 오시면서 우리 팀이 비슷한 축구를 하고 있다. 동계훈련 때도 그랬고, 평소 훈련에서도 감독님께 많이 배우고 있다.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다.



Q. 윤정환 감독이 센터백에게 요구하는 점은 무엇인가?
감독님이 센터백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감독님께서 기본적인 틀을 알려주시고 그것에 관한 말씀을 주로 해주신다. 감독님이 짜준 전술에 맞춰 뛰려고 노력 중이다.

Q. 윤정환 감독님 체제에서 인천의 빌드업이 더 조직적으로 바뀌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느끼는 현재 인천의 축구는 어떠한가?
감독님이 빌드업 구조를 굉장히 잘 잡아놓으셨다는 인상이 있다. 공을 잡았을 때, 선수들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신다. 공을 받아야 할 위치로 선수들이 움직이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확실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훈련을 해서 경기장에서도 빌드업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 감독님 전술에 믿음이 있다. 홈 2연전이 잘 풀려서 다행이다.

Q. 앞선 2경기를 봤을 때 상대 진영으로 침투하는 오른쪽 풀백 최승구나 곧바로 전방에 있는 선수를 겨냥한 패스를 자주 한다. 훈련 중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한 플레이인가?
동계훈련부터 계속 연습한 플레이이다. 평소 훈련에서도 자주 한다. 감독님께서 앞으로 찍어 차는 킥이 정교해야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그 말씀 듣고 따로도 연습하고 있다. 훈련장에서도 선수들과 같이 맞춰본다. 좋은 장면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프로 3년 차, 막내에서 수비진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Q. 올해 프로 3년 차가 되었다.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끼는가?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낀다.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경기장에서 긴장을 덜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부족하고 발전해야 할 점도 많지만, 여러 면에서 작년보다 좋아진 것 같다.



Q. 인천 공식 유튜브 <피치 위에서> 영상을 보면 예전보다 매우 여유로워졌다는 인상이 있다. 그 평가에 동의하나?
솔직히 나 자신도 경기장에서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내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비해 여유로운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한다. 나보다 어린 친구들과 같이 뛰는 점도 한 몫하는 거 같다.

Q. 2002년생으로 올해 만 23살이 되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U-22 쿼터로 뛸 수 없다.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는가?
U-22 쿼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가짐이 바뀌지는 않았다. 신인일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수비수는 U-22 선수로 기회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운동했다. 원래도 U-22 선수라는 점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U-22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Q. 지난해에는 수비진에서 막내였다. 올해는 더 어린 박경섭, 최승구와 함께 경기에 나오고 있다. 후배 수비수들을 평가한다면?
(최)승구, (박)경섭이 모두 시즌 초반에 활약이 좋다. 아주 잘하고 있어서 내가 특별히 칭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대로만 해준다면 문제 없을 것 같다.

Q.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나?
승구는 나와 오른쪽 라인을 같이 쓰다 보니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어떻게 공을 받으면 좋을지 같은 이야기를 한다. 내가 승구에게 요구를 많이 한다. 경섭이는 서로 맞춰가는 중이다. 지금처럼 같이 뛰면 더 잘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

Q. 매거진 인터뷰는 이전에도 해보았지만, 매거진 메인 인터뷰이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팬들이 이번 매거진을 어떻게 봐주었으면 좋겠는가?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 내가 먼저 요구하기가 어렵다. 팬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Q. 팬들이 매거진에 사인을 받으러 온다면?
거절하지 않고 열심히 해드리겠다.

Q. 올 시즌의 목표는?
이번 시즌 목표는 인천의 모든 구성원들과 똑같다. K리그 승격이다. 우리가 원래 있었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2025년 나의 가장 큰 목표다. 내 개인 목표는 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부상 없이 한 시즌을 보내고 싶다.

Q.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메시지 부탁한다.
지난 시즌은 이미 지나갔다. 지난해의 아픔은 마음 한편에 넣어놓고, 앞을 향해 나아가겠다. 올해는 경기장에서 팬들이 웃을 일만 있으면 좋겠다. 팬들이 마음껏 기뻐할 수 있도록 뒤에서 실점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인천의 승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뛰겠다. 시즌 마지막에는 팬들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주셔서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공적인 프로 데뷔 최승구, 리그 우승으로 K리그1에 돌아가겠다

글=이환희UTD기자(hwanhee515@naver.com)



프로 데뷔, 기쁘고 행복한 순간

Q. 입단은 작년이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프로에 데뷔해 선발 출전하고 있다. 소감이 어떤가?

경기에 나서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쁘다. 행복한 순간들을 보내고 있다. 1라운드 경남전에는 상대가 내가 어떤 선수인지 몰라서 더 빛날 수 있었다. 2라운드 수원삼성전에는 상대가 나를 분석하고 들어오다 보니 경남전보다는 어려웠다.

Q. 개막전 선발이라는 걸 언제 어디서 알았고, 기분이 어땠나?

경기 전날 세트피스 훈련을 하면 누가 선발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선발 쪽에서 훈련을 해서 기대를 했고, 경기 당일 미팅 때 라인업을 보고 긴장이 많이 됐다. 심장이 엄청 빨리 뛰었고, 밥 먹는데 숟가락이 흔들릴 정도였다. 팬분들의 버스맛이 응원을 보면서 긴장을 풀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

Q. 90분 체력이 완성된 상태인가?

당연히 풀타임을 뛰고 싶고, 90분을 뛰기 위해 힘을 조절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매 순간 힘을 쏟아부어야 하고, 내가 교체되더라도 좋은 동료들이 있다. 70분대가 되면 정신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감독님께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교체해 주시는 것 같다.



윤정환 감독님의 섬세한 가르침에 감사하다

Q. 유소년 시절부터 여러 지도자들을 거쳤을 텐데, 윤정환 감독만의 특별한 점은?

6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으니까 6~7명 정도의 감독님들과 함께 했다. 그동안 이렇게까지 섬세하고 자세하게 축구를 알려주는 감독님은 없었다. 보통은 감독님보다는 코치님들이 전술적으로 도와주시는데 윤정환 감독님께서 내 옆에 오셔서 위치도 구체적으로 잡아주신다. 그래서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감독님께 감사하다.

Q. 지난해 윤정환 감독이 강원FC에서 오른쪽 풀백 황문기에게 공격적인 역할을 맡겨 성공을 거뒀다. 풀백의 전술적 움직임에 대해 특별히 지시하신 점이 있다면?



든든한 팬들의 목소리가 승리로 이어진다

Q.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경기장과 관중석이 매우 가까운데, 측면에서 뛰면서 팬들이 하는 말이 들린 적은 없었나?

뛰다 보면 바로 옆에 팬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최승구 파이팅' 같은 말이 들린다. 경기 중에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더 힘이 나고 너무 좋다. 공이 밖으로 나가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는 응원하는 말들이 잘 들린다.

Q. 경기장 안과 밖에서 느낀 인천팬들의 응원은 어떻게 달랐나?

작년에 관중석에서 팬분들을 보면서도 전율을 느꼈다. 형들이 뛰는 경기를 응원해 주시는 것을 보고 엄청 힘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올해 경기장에 들어가서 느껴보니 정말 그렇다. 항상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좋은 영향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Q. 최근에 사인 요청이나 SNS 반응 등 입단 이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떤가?

너무 감사하다. 내가 아직 어린 선수이고 많은 경기를 뛰지는 않았는데 많은 관심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감사하다. SNS로 응원 메시지를 주시는 것에 모두 답장해 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나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한다. 많은 관심을 주시는 만큼 경기장에서 더 열심히 뛸 수 있을 것이다.

Q. 프로축구선수로서 장기적인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라면 38~40살까지 은퇴하지 않고 건강하게 뛰는 것이다. 큰 부상이나 수술 없이 꾸준히 출전해서 경기를 잘하는 게 목표다.

Q. 이번 시즌의 목표는?

20경기 정도 출전하고 싶다. 또 공격 포인트 10개를 올리고 싶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의 우승이다. 1위로 K리그1으로 돌아가는 게 올해의 목표다. 감독님께서 홈에서는 모든 경기를 이기자는 얘기를 하신다. 승점을 적어도 70점 정도는 쌓아야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 최소한 39경기의 절반 정도인 20경기는 꼭 이기고 싶다.

Q.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메시지 부탁한다.

작년에 다 같이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보다도 더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 선수들을 아껴주시고 힘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보답하고자 경기장 안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노력 중이다. 과정보다 중요하지만 결과를 꼭 가져오려고 한다. 든든한 인천팬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발 더 뛸 수 있고, 결과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

공을 받을 때, 감독님께서 요구하시는 위치가 있다. 그 위치에 서 있으면 나에게 공이 좋게 오기도 하고 팀 전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대의 포메이션에 맞춰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신다.

Q. 1~2라운드를 마치고 윤정환 감독이 따로 해준 말이 있었나?

두 경기 모두 교체될 때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다. 경남전이 끝나고는 팬분들께 사인을 해 드리느라 내가 좀 늦게 동료들에게 돌아갔다. 감독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유명해져서 얼굴도 못 보면 어떡하냐'고 장난을 치셨다.



어려진 수비진, 걱정 안해도 괜찮다

Q. 작년에 비해 인천의 수비진이 많이 어려졌다. 경험 부족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괜찮을까?

나도, (박)경섭이 형도 이제 막 프로 데뷔를 했다. 경험이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도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경기 시간에는 완전히 몰입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딱히 없다. 여태껏 열심히 운동한 시간들이 있고 감독님의 전술 아래 동계 훈련에서 발맞춰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Q. 경남전에 김건희가 대각선으로 찰러주는 패스의 정확도가 높고 위협적이었다. 둘이 어떤 소통이 있었고, 경기장에서는 어떤 말을 주고받았나?

동계훈련 때부터 준비해 왔다. 우리 둘 다 몸에 배어 있는 플레이였다. 폰세카가 나를 수비했는데, (김)건희 형이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지시해 줬다. 그 말을 따르면 보니까 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Q. 작년에는 프로에 입단했지만 경기에는 나서지 못했다. 기억에 남는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나? 본인의 마음가짐은 어땠었나?

작년에 계속 B팀에서 생활할 때, 지금은 이적한 김유성, 송시우, 권한진 형이 많이 도와줬다. 형들에게 언제 데뷔했는지, 데뷔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물어봤다.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과 멀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힘든 시기도 많았다. A팀 선수들과 뛰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기 위해 운동에 몰입했었다. 그랬던 게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더욱 젊고 활기찬 팀’이 된 인천, 팀의 새로운 성공 공식을 찾다

글 = 이지우 UTD기자(jw2000804@naver.com)

인천유나이티드는 2025시즌이 개막한 이후 멋진 경기력으로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똘친 선수들의 플레이가 경기장에서 좋은 성과를 냈고, K리그2 우승 후보로 꼽히는 저력을 충분히 입증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팬들을 놀라게 한 선수들이 있었다. 최승구, 박경섭 등 젊은 신예들이 시즌 초반부터 기회를 얻었고, 충분한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달라진 인천’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이번 기사에서는 과거보다 젊고, 단단한 팀으로 변모한 인천의 모습을 독자들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한다.

* 본 기사에서 언급되는 나이의 기준은 연 나이(생일을 고려하지 않는 만 나이)이다.



베테랑 중심의 팀이었던 인천, 팀에 젊음을 더하다

2020년대의 인천은 보통 베테랑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팀으로 인식되었다. 2021시즌을 앞두고 김광석, 오재석, 오반석 등 경험 많은 선수들이 대거 합류하였고, 이 선수들이 팀의 상승세를 이끌면서 베테랑 중심의 팀 구성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 영향으로 정혁, 김창수, 이명주, 여름, 신진호, 권한진 등 리그에서 오래 활약한 30대 선수들이 팀에 계속 합류하였다.

하지만 베테랑 위주의 구성은 한계 역시 노출했다. 노쇠화로 인해 신체 능력이 떨어진 선수들이 많아졌고, 장기전인 리그에서는 특히 뒤로 갈수록 지친 모습이 엿보였다. 한편, 2023시즌까지는 중간 나이의 선수가 있었지만 2024시즌에는 이태희, 김동현이 군 문제로 팀을 이탈하면서 베테랑과 젊은 선수 사이의 연결고리도 약해졌다.

결국 2024시즌을 아쉬운 결과로 마친 인천은 새 시즌을 준비하면서 큰 폭의 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계약이 만료된 노장 선수들이 팀을 떠났고, 그 빈 자리에는 20대 중반의 젊은 선수들이 합류했다. 실제로 팀을 떠난 15명의

선수는 평균 29.2세에 육박했지만, 새로 영입한 12명의 선수는 평균 연령이 25.7세이다. 인천이 이번 이적시장에서 젊은 팀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인천 선수단의 전체 평균 연령은 26.2세로, 2020년대 기준 2번째로 젊은 팀을 구성했다. 2020시즌을 시작할 당시 평균 25.5세의 선수단을 구성했던 인천은 그 뒤부터 베테랑 선수를 수혈하면서 한때 평균 28세(2022시즌 후반기)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다. 체질 개선에 돌입한 인천은 2025시즌을 기점으로 신규 조화가 완벽한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은 중간 나이의 선수인 이상기를 영입하면서 선수단 구성의 균형을 맞췄다. 2024시즌에는 20대 후반 선수가 전무했지만, 1994년생 문지환-김동민과 1998년생 김보섭의 중간에 들어갈 1996년생 이상기가 합류하면서 선수단 구성의 양극화를 해소하였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예정인 이태희, 김동현까지 고려하면 이전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가 고루 포진한 팀이 되리라 기대를 모은다.



실제 경기에서도 드러난 ‘새로운 인천’의 모습

이적시장에서도 인천은 확실한 변화를 보여줬지만, 실제 경기에 나선 선수들의 면모를 보면 달라진 점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2024시즌 개막전에서 인천은 평균 연령 30.1세의 선발 명단을 내세웠다. 특히 30대 선수는 8명(이범수, 김동민, 권한진, 오반석, 이명주, 음포쿠, 무고사, 제르소)이나 경기에 나섰다. 2라운드 FC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인천은 평균 30세의 명단을 구축했다.

하지만 인천이 이번 시즌에 내세운 명단을 보면 작년과 확연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개막전에서 선발로 출전한 인천 선수 11명의 평균 연령은 27.9세로,

작년에 비해 2.2세가 어려졌다. 30대 선수의 비중도 8명에서 5명(이주용, 김도혁, 이명주, 제르소, 무고사)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가장 선명한 차이를 드러낸 포지션은 수비진이다. 2024시즌 개막전에서 인천은 3-4-3 포메이션을 선택했는데, 중앙 수비수 3명(권한진, 오반석, 김동민)이 모두 30대였다. 양 측면 윙백으로 나선 홍시후(당시 23세)와 최우진(당시 20세)을 고려하면 완전히 노장으로만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후방 기동력이 불리한 조건은 맞았다. 하지만 2025시즌 개막전에서 인천의 포백을 맡은 네 선수는 평균 24.3세로 굉장히 젊은 편이다. 그중 박경섭, 최승구는 U22 선수 의무 출전 규정을 충족할 정도로 어린 선수 이기에 큰 주목을 받았다.

U22 선수를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모습도 큰 변화점에 해당한다. 작년 1라운드에서 인천은 선발에 U22 선수 2명(최우진, 박승호)을 기용했고, 교체로는 활용하지 않았다. 2라운드는 박승호 1명만 선발로 출전하고 그 이상의 선수는 활용하지 않았다. 교체 명단에 최우진, 김현서, 백민규, 김건희까지 4명의 U22 선수가 대기하고 있었으나 인천은 아예 교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하지만 올해 인천은 1라운드, 2라운드에서 연속으로 U22 선수 3명(박승호, 박경섭, 최승구)을 선발로 내세웠다. 선발로 나선 세 선수는 각자의 포지션에서 충실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윤정환 감독의 믿음에 보답하였다. 특히 박경섭, 최승구는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 두 선수의 기용이 얼마나 과감한 선택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과감한 유망주의 기용, 새로운 성공 시대를 열다

재능 있는 젊은 선수의 육성은 프로 팀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 요소에 해당한다. 실제로 2023시즌의 인천은 베테랑 선수들이 한계에 노출되자 최우진, 박승호를 필두로 젊은 선수를 적극 기용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아쉽게도 2024시즌에는 충분히 기회를 받지 못한 유망주도 있었고, 팀 전체의 구성은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완벽한 체질 개선에는 실패했다.

2025시즌에 우승과 승격을 노리는 인천 입장에서 젊은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젊은 선수의 기용은 물론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들이 출전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박경섭, 최승구가 보여줬듯이 실제로 팀에 도움이 되고, 주전으로 나설 자격을 입증해야 팀도 긍정적인 힘을 받을 수 있다.

윤정환 감독 밑에서 인천은 ‘치열한 경쟁’과 ‘합리적인 기회’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팀으로 성장하는 중이다. 훈련장에서 치열하게 겨루다가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준 선수들이 선발 명단에 오르고, 무명이었던 선수도 자신을 증명한다면 과감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잡힌다면 아직 출전하지 못한 후보 선수들 역시 준비가 된다면 기회가 온다는 점을 인지하게 된다. 시즌은 길고,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한다. 주눅이 들거나 기세가

떨어진 선수 없이 모두가 준비된 모습으로 시즌을 치른다면 1년의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다. 현재 팀이 보여주고 있는 방향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이다.

현재까지는 출전 기회를 받고 있는 박경섭, 최승구, 박승호 세 선수가 가장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인천에는 이들 외에도 뛰어난 재능이 많다. 청소년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활약한 백민규가 대표적이고, 훈련장에서 언제나 열의에 찬 모습을 보이며 도전을 즐기는 미드필더 이가람 역시 기대주이다. 어느 포지션으로 출전해도 빠르게 적응하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김세훈, 점점 신체 능력이 완성되어가며 든든한 중원 지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박진홍, 겁 없는 테크니션 김현서 등도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들이다.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은 팬들에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리라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조화와 균형

한편, 젊은 선수에만 치중하지 않고 베테랑의 관록을 팀에 적절히 더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젊은 선수로 구성된 팀은 활기차고 패기가 넘치지만, 경기를 운영하는 면에서는 경험 많은 선수를 따라오기 힘든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인천은 이미 베테랑의 장점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내뒀던 팀이고, 베테랑 선수의 중요성도 잘 아는 편이다.

시즌 초에 주전으로 나서는 선수 중에는 이명주, 무고사, 제르소, 김도혁, 문지환, 이주용 등 베테랑 선수들이 꽤 존재한다. 이들은 젊은 선수들이 미처 못 보는 약점을 지적하고, 팀을 독려하며, 상대의 플레이에 휘말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주장 이명주의 역할은 인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공격 전개의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명주는 실력도 출중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더 뒤러는 자세를 보여주면서 타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이다. 이명주가 팀에 헌신하기 때문에 젊은 선수, 중견급 선수, 고참 선수가 모두 하나의 팀으로 뭉쳐서 활약할 수 있는 셈이다.

수비진에서는 이주용의 존재감도 상당하다. 파트너로 젊은 선수들이 주로 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용은 이들을 이끌어주는 수비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주용은 빌드업에서도 한 축으로 활약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수비진 전체를 조율하면서 팀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 두 선수 외에도 팀에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는 주포 무고사, 팀의 상징이 된 하프스트라 김도혁 등 여러 베테랑들이 젊은 선수들과 공존하면서 팀을 이끌고 있다.

인천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수단 모두가 빠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야 하며, 시즌 초의 인천은 이 점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젊은 선수의 도전적인 자세, 베테랑 선수의 침착하면서도 팀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 그리고 이들의 중간에서 소통을 돕고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 선수가 모두 살아날 때, 인천은 가장 강한 팀이 될 수 있다. 2025시즌의 여정을 막 시작한 인천은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싸우기 위해 계속해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파검빛 꿈을 후원하는 사람들, 서쪽사람들

커다란 날개를 펴고, 희망에 더 가까이

2025년 2월 8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FC의 후원회 [서쪽사람들]이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하였다. 인천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후원회는 팬들의 응원을 모아 강등의 시련을 겪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작년 말, 인천유나이티드의 강등이 확정되고 모두가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은 팀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렇게 [서쪽사람들]은 시작되었다.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후원회를 만들어 인천팬들의 열정과 사랑을 팀에 직접 전달하는 창구가 되고자 한 것이다.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준비위원 모두가 각자의 생업을 지닌 생활인으로서 시간도 재정도 여유롭지 않음은 물론 팀은 강등의 후폭풍에 휘말려 있어 후원회의 추진이 수월하지않은 않았다. 그러나 인천팬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천팬들은 후원회의 탄생을 한마음으로 응원하였고, 그 결과 서쪽사람들의 창립총회가 순조로이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서쪽사람들은 팀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팬들의 염원을 모아, 인천유나이티드의 1부 복귀와 발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후원회원을 모으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이벤트와 홍보물품의 개발, 각종 매체를 통한 후원업체 홍보활동 등이 그것이다.

후원회는 팬들의 땀방울이 모인 후원금이 인천유나이티드의 발전에 가치있게 쓰일 수 있도록 성실하고 투명한 운영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회원들과 함께 발전하는 후원회가 되고자 한다. 이는 인천유나이티드가 진정한 시민구단으로서 거듭남은 물론 더 강력한 게 발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후원회의 홈페이지는 3월 중 오픈 예정이며, 현재는 카카오톡 채널(@서쪽사람들) 및 인스타그램(@incheonutd_west)을 통해 후원회 가입이 가능하다. 후원금액에 따라 블루(월 1만원), 블랙(월 10만원), 골드(월 100만원)의 3가지 등급이 부여되며 각각의 등급에 따른 혜택 또한 준비되어 있다. 후원회는 구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더 다양한 후원방법과 채널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밝게 내딛는 첫 걸음



▲ 지난 2월 8일, 인천UTD 후원회 '서쪽사람들' 창립 총회
(사진/디자인 제공 : 서쪽사람들 미디어팀 : 박은서, 소원 / 디자인팀 : 나경민, 김태현)

창립을 맞은 [서쪽사람들] 설립준비위원회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윤준구(후원회장) : 서쪽사람들의 창립은 인천유나이티드와 팬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후원회는 지역사회와 인천팬 그리고 팀을 하나로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 인천유나이티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용범 : 20여년전 내고향 인천에 "인천"이라는 이름을 달고 프로축구단이 생겼다는 일은 너무나도 생경한 일이고 20여년의 시간동안 2번의 준우승 그리고 "생존왕"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참가, 그리고 "강등"이라는 참담한 결과까지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우리 인천유나이티드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 후원회를 결성하였고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든든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문 : 인천유나이티드 창단전에는 팀이 없어 서글픈 마음에 창단활동을 하였으나, 지금은 세월도 많이 흘렀고 팀에 어찌하면 도움이 될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후원회를 만들어보자 하여 이렇게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인천을 창단하였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작은 손길들이 모여 구단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준비과정의 힘들고 험난했으나 인천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후원회를 발족하게 되어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과 동시에 앞으로 더 열심히 움직여야겠다는 사명감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서쪽사람들"이라는 후원회로 인하여 우리팀이 더욱 발전하여 아시아의 NO.1 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영철 : 서쪽사람들은 인천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우리가 함께 시련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과정의 상징이 될 것이며 우리의 인천유나이티드가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기 위한 전환점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팬들의 힘을 모아 구단을 단단하게 만들고 인천유나이티드가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경 : 강등의 시련 앞에 슬퍼하기보다 사랑하는 팀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마음의 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이라는 우리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고 더 많은 분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힘이 모여 더 강한 인천유나이티드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박재용 : 내 고향팀 인천이 2부리그로 강등된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번 후원회의 창립으로 인천이 1부리그로 복귀하는데 팬으로서 힘을 보탤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 감개무량 합니다. 후원회가 더욱 성장해서 인천 유나이티드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동반자로, 힘을 모아 1부리그 승격과 아셈, 우승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쪽사람들
문의

TALK 카카오톡 채널 (@서쪽사람들)

인스타그램 (@incheonutd_west)

인천유나이티드 블루마켓 운영 안내



IUFC
BLUE MARKET

2025시즌
인천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상품들을
만나보세요!

GATE-W7 옆 2층
경기 시작 2시간 30분전 ~ 경기 종료 30분 운영
온라인 블루마켓 WWW.INCHEONUTDMARKET.COM